



남아공, 플라스틱백 환경부담금 부과 kg당 10란드 징수키로

남아공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쇼핑백에 대해 환경보호 부담금으로 kg당 10란드(약 1.43달러)를 징수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artin Grote 재무성 세정국장에 따르면 이 부담금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부과될 것이며 통산부, 환경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제도는 환경보호를 위한 남아공 최초의 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세 징수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kg당 10란드 부담금은 너

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정과정에서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담금은 최종 물품 구입자가 부담토록 돼 있으며 결국 재정 수입 증대와 플라스틱 백 사용 억제를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 5월 9일부터 일정 두께 이하의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의 시행 효과가 좋아 2단계로 분담금 징수를 통해 환경 오염 억제에 노력하고 있다.

남아공의 플라스틱 백 사용량은 80억개로 추산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8천2백만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두께 30마이크론 이하 제조금지 조치로 인해 5백~1천개의 일자리가

감소됐다고 주장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경우 파업 등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아공 최대 노동단체인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 대변인 Patrick Cravern은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 징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도 정부에서 관련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말, 식품포장사 환경친화적 제품 출시 연 매출액 신장기대

소비재 중심 회사인 말레이시아 UPA사가 환경 친화적인 포장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이번 제품 출시로 UPA사는 내년 RM 1천5백만에서 RM 2천만에 달하는 연매출액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출시된 신소재 상품은 식료품 포장 및 타 공업상품 포장에 적합한 새로운 폴리에스테르 상품이다.

UPA사는 50 : 50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출시될 신제품을 내수시장뿐 아니라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지의 국외로 50% 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UPA사의 2002년 수출액은 RM 2천5백만이었으며 2003년 RM 3천만 수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여년전에 창립된 UPA사는 1992년 세컨

드 보드에 처음 상장된 후 최근 메인보드로 업그레이드돼, 장당 1링깃의 보통주 6만1천2백78백만에 이르는 모든 발행주와 불입자본을 메인보드로 이전시켰다.

주식가격은 기준가격인 RM 1.36보다 장당 RM 0.03 이 높은 RM 1.39에 시작됐고 13만1천3백장의 주식 거래 속에 1.45링깃에 마감됐다.

말레이 포장잉크사, 생산시설 대대적 확충 토요사, 동남아 중심 해외 시장진출 계획

프린트용과 포장산업에 사용되는 잉크를 제조하는 말레이시아 Toyo Ink 그룹이 공채발행으로 얻어지는 RM1천3백만 중 RM9백20만을 생산시설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6백만 링깃은 사무실이 딸린 공장을 짓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RM3백20만은 새로운 기계류와 실험실기구 구입에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사는 2004년 9월 공장건설이 완공되면 본사와 생산시설을 지금의 페탈링자야에서 새 공장지대로 옮길 예정이며, 기존의 샤알람에 있는 공장시설과 합쳐 8천7백톤의 연간 총생산량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장 가동율을 70%로 예산했을 때 현재 연간 총생산량은 약 4천5백톤 수준이다.

토요사는 쿠알라룸푸르 세컨드보드 주식시장에 2003년 11월10일 상장될 예정이며, 주식시장 이후 아세안 무역자유화를 기회삼아 베트



남,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넓혀, 현재 생산량 중 10%에 머물고 있는 수출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토요사는 2004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 총매출액 RM5천4백47만에 따른 순이익을 RM5백38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10% 판매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식상장으로 토요사는 총 7백만주를 발행해 그 중 RM1의 5백만주는 장당 RM1.40로 공채발행하고 나머지 2백만주는 일반인에게 판매할 계획이며, 주식상장에 관한 인수업과 소개업은 OSK 신용금고사가 맡을 예정이다.

EU, 내달 GM 식품 금지 해제 옥수수Bt-11판매, 투표로 승인 예정

유럽연합(EU)은 다음달 유전자변형(GM) 식품의 유럽시장 내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새로운 GM 식품에 대한 5년간에 걸친, EU의 수입 금지 조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지금까지 EU 관리들은 GM 식품 금지조치가 「수주내」 끝날 것이라고 시사해왔다. 다음달 EU의 한 위원회는 스위스와 영국이 합작 투자한 대형 농업화학기업 「신젠타」가 개발한 통조림 옥수수 Bt-11의 판매를 투표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영국의 읍서버지는 말했다. 이 투표는 GM 제품에 대한 5년만의 첫 투표이다.

이번 조치는 EU의 GM 제품 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달래주는 것이다.

한 고위 EU 무역 소식통은 “GM 식품과 관련한 미국과 EU간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진전이 다음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읍서버지는 전했다.

「신젠타」의 GM 옥수수는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들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미국과 별도로 GM 옥수수를 유럽에서 키우고 수확하기 위해, 「신젠타」가 EU를 상대로 낸 제소도 내년에 심리가 펼쳐진다.

70%에 이상에 이르는 유럽 소비자들의 GM 제품에 대한 반감은 많은 대형 판매점들이 이 같은 식품들을 판매하는 것을 가로막아 왔으며 영국 정부는 지난 수개월 간 GM 기술에 비판적인 보고서들을 잇따라 발표해왔다.

日, 원료원산지표시 업계 반응 엇갈리 가공식품중 47% 원산지표시 의무화

일본 농수성이 커팅 야채 및 건조 야채의 원료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두부 및 낫토 등도 검토 품목으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긍정적으로 대처하려는 반응이 있는 한편, '경비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의 의견도 강하다.

농수성은 가공식품 중 건조물, 소금절임식품, 조미액을 혼합식품, 신선식품 혼합물 4가지로 새롭게 원료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했다.

커팅야채과실을 취급하는 '돌'은 원산지 표시의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커팅 야채를 판매하는 큐피트도 "포장재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다업중앙회는 "녹차, 음료 모두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검토해야만 한다"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매업자는 신선 식품에 준해 가공식품도 표시를 강화하는 것은 회사로서도 바라는 바라며 긍정적이었고 생협도 소비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두부협회는 두부의 품질이 수입대두와 국산으로 변함없다고 밝혀 표시의 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нат협동조합연합회는 특히, 경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한 나토편체는 "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 소리는 강하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원료산지를 바꿀 경우, 표시도 바꿔야한다"고 경비 증가를 걱정했다.

일본곤약협회는 "표시에 대한 산지 및 소비자의 요구가 강해 업계측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싶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이 충실히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음료업계도 "소비자의 요구는 강하지만 캔이나 병에 어떻게 표시해야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원산지표시는 국산원료의 수요 증가로 이어

진다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일본두부협회는 "업체에서는 국산대두 사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급량이나 가격이 불안정해 원산지표시의 의무화될 경우,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수입대두로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생협은 "재료의 조달처는 자체개발상품을 제외하고 시기에 따라 업체가 바꿀 수 있다.

원료원산지를 하나하나 파악하기에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매업자들의 과제를 제시했다.

日 농수성, 생산정보공표 JAS 마크 결정 이달부터 쇠고기에 도입 예정

農水省은 지난 14일 생산정보공표 JAS마크를 발표했다. 동 JAS는 식품의 생산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 것을 제3자 기관이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일본 농수성은 이달부터 쇠고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인정기관의 등록 및 농가의 인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JAS 마크가 붙은 쇠고기가 점포 앞에 진열되는 것은 빨라도 2004년 여름경이 될 듯하다. 마크는 일반 공모 가운데에서 北海道阿寒町の 일러스트레이터 南條英一씨의 작품을 선정했다.

동 省은 쇠고기에 이어서 돈육에 생산정보 JAS를 도입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 정식으로 결정한다. 한편 채소 및 과일, 쌀 등의 농산물도 내년 초부터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美 MIT, 친환경 플라스틱 저열처리법 개발 대규모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

미국 과학자들이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지 않고도 모양을 주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금세기 최대의 환경문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의 대규모 재활용 문제 해결에 다가섰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질 때까지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됐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앤 메이에스 박사팀은 “단단한 플라스틱인 폴리스티렌 분말을 부드러운 플라스틱인 폴리부틸 아크릴레이트 분말과 혼합한 뒤 압력을 가하자 단단한 쪽이 부드러운 쪽으로 용해돼 들어가면서 모양을 만들기 쉬울 만큼 유연한 상태가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메이에스 박사는 “이미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정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다만 다른 점은 단단한 성분과 부드러운 성분을 사용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정은 플라스틱 재주조시 열을 가했다가 식히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내연제나 자외선 안정제 등의 첨가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의 대규모 재활용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의 공동연구자인 MIT의 후안 곤잘

레스-레온은 체내 투약량 조절을 위해 피부 밑에 이식하는 기구에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고열에 따른 부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스퍼드대 헤이젤 어센더 박사는 “이는 플라스틱의 품질을 저하시키기 않기 때문에 재활용에 유용하다”면서 “산업공정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센더 박사는 현재 플라스틱 분류와 같이 대규모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비용을 증가시켜 플라스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日, 냉동식품에 '국산자재 표시 매출상승' 냉동 오코노미야키 메이커 매출 60% 증가

냉동 오코노미야키의 포장지에 ‘국산 자재 사용’이라고 명기해 판매한 결과 매출고가 60%나 증가되었다는 업계보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카가와 현의 냉동 식품 메이커 ‘가토요시’사가 주인공으로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산 사용’이라는 표기를 붙여서 판매한 결과 전년 대비 60%의 매출고 증가를 거뒀다.

포장지의 디자인 변경에 맞추어 어필을 해 본 결과 소비자의 안전지향 의식을 배경으로 실제 소비증가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의



오코노미야키 매상고는 연간 약 50억엔 수준으로 양배추의 경우 선도가 좋고 물류비가 별로 들지 않는 점에서 국산자재를 사용, 연간 5천4백톤 전량을 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같은 국산자재 사용성과에 힘입어 금년 10월부터는 국산 파를 사용한 신제품도 출시했는데 현재까지 사용해온 중국산을 대체하면서 매상증가로 연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日, PE포장지 수입호조세
1~9월 12.7%증가

일본의 PE 포장지 수입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올 9월 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27만4천2백73톤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산 PE 포장지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제품의 특성상 품질 등의 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주로 가격조건에 의하여 수입선이 결정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내 관련수입상들에 의하면, 최근 PE 포장지의 평균 단가가 kg당 1백47엔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결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수입이 올 1~9월 기간중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한 11만7천3백59톤으로 확대됐다. 또한 일본의 PE 포장지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한 현지 공장의 생산제품이 일본으로 역수

입되는 수량도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올해 들어와 대일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해 가격경쟁력 차이로 인해 명암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올 1~9월 기간중 전년동기대비 67.3% 급감하는 수출실적으로 부진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PE 포장지의 용도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일반 유통업체들이 많이 수요하는 상품 포장용 봉투,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등이 전체적인 수입증가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PE 포장지 수입이 2001년도에도 전년대비 18.4% 증가한 34만3천9백57톤으로 호조를 보였으며 올해도 이 같은 추세로 갈 경우 2003년도 이 PE 포장지 수입이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한 40만톤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

월간 포장계는 포장업계에 유익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 및 광고 문의는
(사)한국포장협회 편집실로 해주십시오.

TEL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